

화순군, 대표관광지 변경 군민 목소리 듣는다

적벽·운주사 등 '화순 8경' 변경·확대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의견 제출
관광 명소 발굴 외부관광객 유치 목표
의견 분석 8경 신규 추가 후보 선정

화순군이 적벽·운주사 등 지역 대표 관광지인 '화순 8경'의 변경·확대에 대한 군민 의견을 오는 31일까지 수렴한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의견 수렴은 화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관광 명소를 발굴하고 자 추진되는 중요한 절차다.

기존 화순 8경은 화순적벽·운주사·백아산하늘다리·고인돌유적지·만연산철쭉공원·규봉암·연둔리 숲정이·세량지로 지난 2016년 선정돼 군을 홍보하는 다양한 매

체에 활용되고 있다.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의견 수렴은 31일까지 진행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수렴된 의견은 분석을 거쳐 화순군 대표관광지인 화순 8경에 새롭게 추가될 후보 선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새로운 트렌드가 반영된 특색있고 선호도 높은 명소의 발굴로 우리 지역 관광지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이번 조사로 숨어 있는 관광자원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화순군은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관광체육실 관광기획팀(061-379-35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형재 화순군 관광체육실장은 "군민의 의견을 통해 대표 관광지 변경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지역 내 다양한 매력을 지닌 관광

명소를 찾아 홍보하고, 외부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중 기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함평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 등

함평군이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군민들에게 독려하고 나섰다.

22일 함평군에 따르면 탄소포인트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정, 상업용 건물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의 에너지 절감 목표는 가정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2년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반기별 5%에서 10% 줄이면 75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 10% 이상 절감 시 1500포인트에서 1만5000포인트가 적립되고 발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신규가입자는 5000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로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거나, 함평군 읍·면사무소 또는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환경관리과 기후대응팀(061-320-1837)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명희 환경관리과장은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 지구를 살리는 큰 힘이 된다"며 "많은 군민이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문화누리카드 임시 가맹점 운영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화순군은 11월3일까지 개최되는 '2024년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에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으로 결제 가능한 임시 가맹점을 13개소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문화바우처 카드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3만원을 지원하며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 분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평소 문화누리카드로 식음료 결제는 제한되지만, 이번 고인돌 가을꽃 축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먹거리부스 등에도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축제장 내 가맹점 부스 이용을 통하여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들은 더욱 풍부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먹거리부스 등 총 13곳에서 11월3일까지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시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니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은 스티커가 부착된 곳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화순=김선중 기자



화순군 청소년 35명이 지난 19일 여수 유월데테마파크에서 액티비티 스포츠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액티비티 '루지' 체험 활동

지난 19일 화순군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35명을 모집해 여수 유월데테마파크에서 액티비티 스포츠 체험을 진행했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체험은 선선한 가을바람을 느끼며,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기회였다.

루지의 속도감을 즐기고, 긴장감 넘치는 리얼 레이저 서바이벌 체험과 어트랙션 놀이기구, 크레이지 아택 사격 체험 등 짜릿한 승부로 스릴 넘치는 하루를 제공하여 체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신나고 즐거운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을 선사하였다.

이선화 가정활력과장은 "화순군 청소년수련관이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창의적 역량과 다양한 진로탐색 체험도 개발·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동절기 감염병 대비 독감 예방접종
영광군, 일반군민 대상

영광군은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지난 21일부터 일반군민 대상 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무료접종 대상은 영광군에 주소지를 둔 △55~64세 △14~18세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심장장애(구.1~3급) △국가유공자(본인)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로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보건소(지소·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접종희망자는 유료접종이 가능하며, 접종료는 1만 1000원이다.

올해부터는 무료접종 대상이 60세 이상 영광군민에서 55세 이상 영광군민으로 확대되었으며 장기요양시설 종사자가 추가되어 더 많은 군민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독감 바이러스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함에 따라 매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10~11월에 접종을 완료하시어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장성군 필암서원, 선비 문화제 개최

26일 인문학 강연·첼로 공연 등

장성군이 오는 2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에서 '하서와 함께 걷다'라는 주제로 '선비문화제'를 연다.

22일 장성군에 따르면 '2024년 세계유산 활용 공모사업' 선정으로 마련된 이번 선비문화제는 1부 '필암서원 가는 길'과 2부 문화제로 구성된다.

'필암서원 가는 길'은 선비의 삶을 느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전통 선비 의상을 입고 옛 공부 방식을 체험하거나 인종 임금이 하사한 묵죽도 목판을 화선지에 직접 찍어본다.

필암서원이 배향하는 하서 김인후 선

생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우동사 봉심과 장판각 근처에선 보물 찾기도 진행할 예정이다.

2부 문화제에서는 퓨전국악을 들려줄 '서희선 위드 퓨전 사운드 혼'과 버려진 농악 분무기로 만든 첼로 연주로 환경 보호 메시지를 전하는 '유니크 첼로 듀엣'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서 MBN 조선판스타 우승자인 김산옥 소리꾼의 공연이 축제의 흥을 돋운다.

공연 이후에는 인문학 강연도 열린다. 조정욱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가 '조선 선비들의 그림과 필암서원 묵죽도'를 주제로 강의를 맡는다. 동양미술 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조교수는 '조선 최고의 풍속화가 김홍도', '그림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등 20여 권의 책을 집필한 베스트셀러 작가다.

이밖에 '선비 백일장', 전통 음식을 만드는 '선비 요리사', 붓과 먹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선비 화실', 다양한 전통놀이 있는 '선비의 놀이터' 등 즐길거리도 다채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참여 문의는 행사 주관사인 사단법인 광주문화나루(062-672-6966)로 하면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훌륭한 학자와 청백리를 여럿 배출한 장성군 고유의 선비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세계유산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선비문화 고도화에 집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대기환경 개선 수소차 보급
함평군, 탄소중립 실현 동참

함평군이 수소경제 활성화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수소차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은 2022년부터 수소차 보급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수소 승용차 9대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추가로 3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들은 친환경 자동차를 도입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게 함평군의 설명이다.

수소차 보조금은 대당 3500만원으로 함평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구매를 희망하는 이들은 수소차 판매처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차량 출고 및 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환경관리과 기후대응팀(061-320-1837)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명희 환경관리과장은 "친환경 수소차 보급사업을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겠다"며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군민들이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